

최근 유럽의 경유 품질동향

최 근 유럽의 경유 품질(황함유량, 세탄가, 저온성)이 향상되고 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첨가제에 기인되고 있다.

옥텔사는 지난 '92년말~'93년 초에 유럽의 주요 정유공장 주변에 있는 주유소에서 동절기용 경유를 채취, 분석하였다. 그 분석목적은 정유사에서 판매하는 경유의 품질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다. 시험결과 경유품질은 국가별로, 지역별로 크게 달랐다. 첨가제 투입은 증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전체적으로 품질이 개선되고 있다.

〈표-1〉은 국가별 황함유량 표시이다. 과거보다 황함유량은 감소했다. 프랑스의 한 회사만이 유럽기준 0.3wt%를 초과한 0.32wt%를 나타냈다. 특히 스칸디나

비아 국가에서 판매되는 경유는 대부분 황을 전혀 함유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아직도 다수의 정유회사들은 유럽연합의 명령 91/C 174/09의 규정(최대 황함유량 0.05wt%)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옥텔사는 저유황 경유의 저유동성이 일부 연료펌프에서 몇몇 문제를 야기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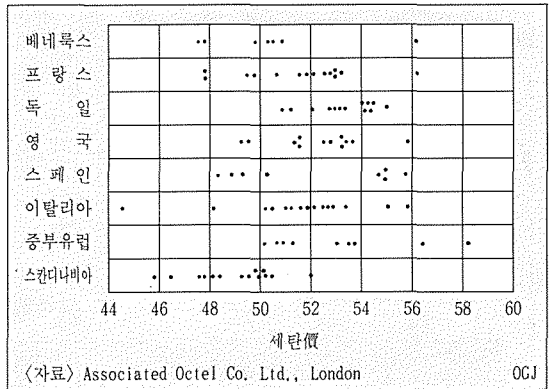
세탄가는 전체적으로 높았으며, 채취한 샘플의 반이상에서 세탄가 향상제가 검출되었다. 그런데 북유럽은 연료의 低溫性(*low temperature properties*; 저온에서도 사용가능하도록 한 연료성질)을 강화하였으며, 그 연료 대부분이 50이하의 세탄가를 보였다.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 세탄가는 50보다 높았으며, 일부가 48이하였다. 독일과 중부유럽(오스트리

아, 체코슬로바키아, 그리스, 스위스)의 제품들이 세탄가가 높았으며 그 중 하나는 58.2로 최고치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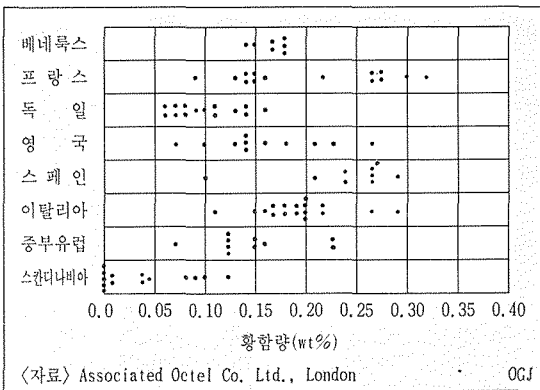
최근에 C.F.P.P(저온 필터 막힘온도)는 담점(cloud point)이하 없이 하락하고 있다. 그렇지만 왁스 침전제를 도입한 경우 CFPP는 낮아지는 대신 담점은 높아진다. 최근 유럽은 겨울철 날씨가 온화하여 탄력적인 연료 블렌딩이 가능하다. 담점과 저온 필터 막힘온도의 시험치는 <표-4> <표-5>와 같다.♠

■(OGJ, '94. 3.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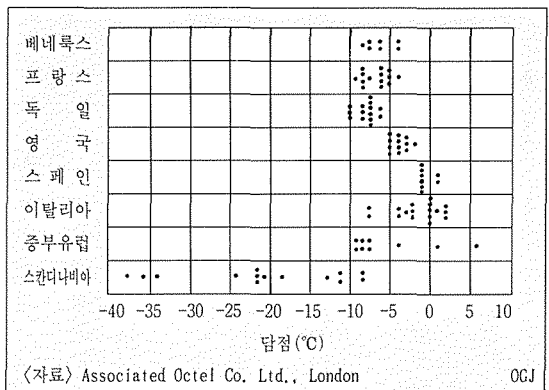
<표-3> 세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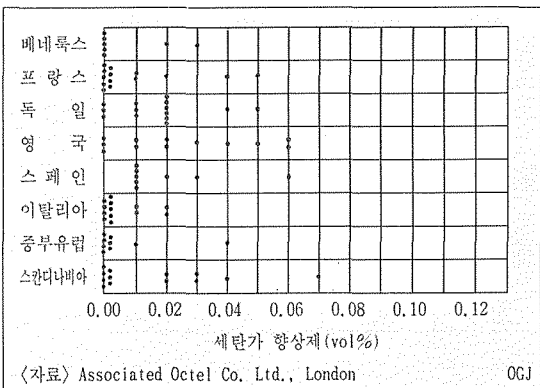
<표-1> 황함유량



<표-4> 담점



<표-2> 세탄가 향상 첨가제 함유량



<표-5> C.F.P.P

